

대학로 문화지구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(안)

의안 번호	115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5. 11. 25

발 의 자 : 박종식 의원 외 8인

1. 주 문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(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)에 규정된 4개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함.

5.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

2. 제안이유

가. 대학로 지역의 약사(略史)를 보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 위치하였고, 이에 근거하여 예로부터 이 지역을 숭교방(崇敎坊)이라 불렀으며, 오늘날 동숭동이라 부르고 있음.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를 경과하면서도 지속되어, 대한제국 공업전습소와 경성제국대학으로 그 명맥이 이어졌으며, 해방후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어, 오늘날과 같은 대학로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된 것임.

나. 1979년 서울대학교 이전이 완료되면서 서울대학교 건물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, 1981년 현 문예회관 자리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문화회관대극장이 자리 잡으면서 공연장을 중심으로 연극인 및 소극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젊은 문화권이 형성하게 된 것임.

다. 1990년 중·후반 공연장 밀집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와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이미지를 지키고자 문화지구 지정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어 1999년 문화지구 조성 모델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인사동과 더불어 문화지구 지정을 검토

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학로 주간선 도로 주변 446,569㎡ (135,087평)을 2004년 5월 20일 문화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임.

라. 따라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공연장은 민간공연장, 학교 공연장, 공공공연장을 합하여 총 57개소가 있고, 예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연극협회, 연극배우협회 등 연극 관련 단체가 밀집해 있으며, 총 48개의 극단이 위치해 있고, 기타 문화시설(12개소)은 미술관, 박물관, 영화관으로 분포되어 있음.

마. 또한 대학로 주변의 지역축제 및 행사로는 서울공연예술제 등 우리나라 연극을 대표하는 다양한 유형의 연극 관련 행사 및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, 최근 들어 은하수 거리축제를 비롯한 주말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도 자주 열리는 편임.

바. 그러나 문화활동 공간인 대학로 주변에서 집회 및 시위가 2004년도에만 무려 160여건에 달하고 있어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, 또한 집회가 한번 끝나면 종이, 캔, 목재 등 각종 쓰레기가 100리터 규격봉투 150여개가 사용될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청소인력 배치, 시설물 하자보수, 교통마비 등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역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으므로 주문한 내용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하는 것임.